

충청남도 시·군 명칭의 유래와 경역(6)

- 논산시 -

임선빈(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 전문위원)

충청남도에는 15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이들 시·군의 경역(境域)은 대체로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인위적인 통합으로 그 윤곽이 정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공주시와 같이 조선시대의 공주목 경역에서 축소된 지역도 있고, 아산시나 부여군과 같이 조선시대까지는 3~4개의 고을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로 통합된 고을도 있습니다. 고을의 명칭과 경역도 백제·통일신라·고려·조선에서 각각 달랐던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의 시·군 명칭은 언제부터 등장했으며, 오늘날의 시·군 경역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을까?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군의 명칭 유래와 경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 고을에 대해서는 관심을 지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충청남도 시·군 공직자나 지역 주민들도 이웃 시·군을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논산시(論山市)는 1996년에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면서 논산군이 논산시로 승격하였다. 논산군은 1914년에 은진군·연산군의 전부와 노성군의 소사면을 제외한 전부, 석성군·공주군·진잠군(鎭岑郡) 등의 일부 지역이 병합되어 설치되었다.

은진은 덕은(德恩)과 시진(市津)의 작은 두 고을이 합쳐지면서 등장한 이름이다. 덕은은 본래 백제의 덕근군(德近郡)이었는데, 신라 경덕왕 때 덕은군(德殷郡)으로 고쳤고, 고려 초에 다시 덕은(德恩)으로 고쳤다. 시진은 본래 백제의 가지내(加知奈, 또는 加乙乃薪浦)인데 신라 경덕왕 때 시진(市津)으로 고쳐 덕은군의 영현으로 삼았다. 고려 현종 9년(1018)에 덕은과 시진을 모두 공주의 임내(任內)로 삼았다가, 조선 초기인 태조 5년(1396)에 덕은·시진과 채운향(彩雲鄉)을 병합하여 덕은현이라 하면서 감무를 두었고, 태종 13년(1413)에 감무 제도를 폐지하고 현감을 설치하면서 종6품의 수령인 현감이 부임하였으며, 1418년(태종 18)에 시진 사람들의 청으로 덕은현을 은진현으로 고쳤다. 인조 24년(1646)에는 이산현 사람인 유탁(柳濯)이 모반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이성(尼城)·연산(連山)과 함께 혁파되고 하나의 고을로 합쳐져서 은산현(恩山縣)이 되었다가, 10년이 지난 효종 7년(1656)에 연한

이 됐으므로 다시 나누어져 은진현이 복설되었다. 은진현은 1895년(고종 32)의 23부제에서 공주부 은진군이 되었다가, 1896년의 13도제에서 충청남도 은진군(3등군)이 되었고, 1914년에는 논산군에 병합되었다.

연산은 본래 백제의 황등야산군(黃等也山郡)이었는데, 통일신라의 경덕왕 16년(757)에 황산군(黃山郡)으로 고쳤다. 고려 초기인 태조 23년(940)에 연산군(連山郡)으로 고쳤고, 현종 9년(1018)에 공주의 임내에 붙이었는데, 뒤에 감무를 두었다. 조선시대에는 태종 13년(1413)에 감무를 폐하고 현감을 파견하면서 연산현에도 종6품의 수령인 현감이 부임하였다. 인조 14년(1636)에는 연산현을 이성(尼城)·은진(恩津)과 합해서 은산현(恩山縣)으로 하였다가, 10년이 지난 효종 7년(1656)에 다시 분리하면서 연산현이 복설되었다. 연산현은 1895년(고종 32)의 23부제에서 공주부 연산군이 되었고, 1896년의 13도제에서 충청남도 연산군(4등군)이 되었다가, 1914년에 논산군으로 병합되었다.

노성은 본래 백제의 열야산현(熱也山縣)이었는데, 신라 경덕왕 때 이산현(尼山縣)으로 고쳐 웅주(熊州:지금의 공주)의 속현으로 삼았다. 고려시대인 현종 9년(1018)에 공주의 임내가 되었다가, 뒤에 감무를 두었고, 조선초기인 태종 14년(1414)에 석성(石城)과 합쳐 이성현(尼城縣)이라 불렀는데, 태종 16년(1416)에 다시 나누어서 종6품의 수령인 이산 현감을 두었다. 이산현도 인조 24년(1646)에 연산(連山)·은진(恩津)과 합하여 은산현(恩山縣)이라 하였다가, 효종 7년(1656)에 각각 복구되면서 이산현이 되었다. 그런데 이산현은 정조가 즉위하면서 ‘尼山(이산)’의 발음이 정조의 이름 ‘이산(李祘)’과 같았으므로 이성현(尼城縣)으로 고쳤고, 다시 순조 즉위년(1800)에 ‘尼城(이성)’의 발음이 선조(先朝)의 어휘(御諱)와 비슷했기 때문에 노성(魯城)이라 고쳤다. 노성현은 1895년(고종 32)의 23부제에서 공주부 노성군이 되었고, 1896년의 13도제에서 충청남도 노성군(4등군)이 되었다가, 1914년에 군을 폐하고 소사면은 부여군에, 그 나머지는 논산군에 병합되었다.

1914년에 처음 등장한 ‘論山郡’이라는 지명의 ‘論山’은 조선 후기 영조 때 편찬된 『여지도서』의 은진군 화지산면(花之山面)에 ‘논산리(論山里)’가 보이고, 정조 때 편찬된 『호구총수』에도 은진의 화지면(花枝面)에 ‘논산리(論山里)’가 보이는 것으로 보아, 마을 이름 논산은 18세기 후반기에 이미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1914년 이후의 논산군 경역은 1963년에 전라북도의 익산군 황화면을 편입하여 구자곡면의 일부 리(里)와 합하여 연무읍으로 승격시켰고, 1989에는 대덕군 진잠면 남선리를 논산군 두마면에 편입하였으며, 1993에는 논산군 상월면 월오

리 일부를 공주군 계룡면 월곡리로 편입하는 행정영역 조정이 있었고, 2003년에는 두마면 지역이 계룡시로 승격되어 논산시에서 분리되었다.